

“교육과정 질 높게 재정립”

고교학점제 내실화 · 지역교육과정 강화 · 교사 전문성 지원 등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공약 발표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를 핵심으로 한 교육과정 재정립 공약을 발표했다.

천 예비후보는 6일 “학생의 삶과 진로를 중심으로 한 탄탄하고 질 높은 전북교육과정을 구축하겠다”며 기존의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 개별 특성과 성장 경로를 반영한 맞춤형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약의 핵심은 고교학점제 내실 운영이다. 천 후보는 도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높이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지역·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한 ‘전북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확대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도 주요 내용이다. 예술·체육·직업 분야 공립형 위탁 고등학교를 도입해 다양한 재능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성화고 교육과정도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해 개편하고 교육·진로·취업이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이와 함께 ‘전북형 지역교육과정’을 통해 금융교육, 자기관리 등 실생활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기후환경·디지털 미디어 문해·다문화 교육 등을 내실화해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겠다고 제시했다.

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천 후보는 ‘수업으로 빛나는 교사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인력 전문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맞춤형이면서도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전북교육을 만들겠다”며 “교육과정 혁신은 일부가 아닌 모든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 바로세우기 퇴직 교원 333명이 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정직성·실용적 비전 갖춘 교육감 필요”

전북 퇴직 교원 333명, 이남호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전북지역 퇴직 교원들이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전북교육 바로세우기 퇴직 교원 333인’은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직성과 실용적 비전을 갖춘 교육감이 필요하다”며 이 예비후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일인 만큼 교육감의 도덕성과 정직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라며 “교육 행정을 이끌

수장은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남호 예비후보에 대해 “전북대학교 총장과 전북연구원장 재직 당시 인사검증과 인사정문회를 거쳐 도덕성과 공적 책임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천호성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과거 선거 관련 법 위반 전력과 표절 논란 등을 언급하며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선거운동 및 경력과 관련한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감의 역할과 관련해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을 넘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남호 예비후보가 대학 총장과 연구원장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연계된 교육 비전을 제시해 왔다고 평가했다.

퇴직 교원들은 “교육의 수장은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검증돼야 한다”며 “전북에서 배우고 정주하는 교육 선순환 구조를 만들 책임자로 이남호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수학 마스터즈 클럽’ 운영 도내 중·고생 215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중·고등학생의 수학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6일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고,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해 ‘수학 마스터즈클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학 마스터즈클럽은 수학 교사가 학생 4~5명으로 소그룹을 구성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고등학생은 수능형 문제 해결력, 중학생은 심화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올해는 학교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총 43개팀이 선정됐으며, 일일학교 34개팀과 중학교 9개팀 등 총 215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중등 학력향상도전학교 학습습관 형성 30일·60일 프로젝트, 수능 1등급 향상 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운영된다.

또한 연중 모의고사 및 내신 성적 분석, 수학클리닉 사전·사후 검사 등을 통해 학습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8월에는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 신장 캠프를 열어 심화 문항 풀이와 학습 전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클럽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상근기자

AI 시대 대응 교원 진로지도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내일부터 7월 2일까지 세 차례 연수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교원 진로지도 역량 강화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학생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진로 전문가 연수’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내 중·고등학교 교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우석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연수는 인공지능 시대 진로교육의 방향성 정립부터 실무 중심 수업과 상담 사례 공유까지 단계별 과정으로 구

성됐다. 전문가 강의와 현장 사례를 연계해 교원의 실질적인 지도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1회차 연수는 오는 8일 진행되며, 이정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사로 참여해 AI 기술 기반 교육 변화 흐름을 분석하고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2회차(6월 5일)는 김효정 한국창년기업가정신재단 본부장이 신산업 이해와 창업가정신을 주제로 강의하며, 3회차(7월 2일)는 문우일 전 세화여자고 진로상담교사가 실제 진로 수업 및 상담 사례를 공유한다.

/오상근 기자

진안교육지원청, 오늘 교육장배 육상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오선화)은 오는 7일 진안공설운동장에서 ‘제40회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배 육상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관내 초·중학생들의 기초 체력 향상과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내 18개 초·중학교에서 총 211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경기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 트랙 종목(80m, 100m, 800m 등)과 필드 종목(멀리뛰기, 포환던지기)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오상근 기자

내년 3월 개교 특수학교 교명, 도민이 직접 뽑는다

전북교육청, 전주·군산 신설 학교 선호도 조사 1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특수학교의 교명을 도민 참여로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신설 학교의 정식 교명 제정을 위한 도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주와 군산에 설립되는 특수학교인 가칭 전주보통학교와 가칭 군산지음학교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14일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직

원, 도민을 대상으로 교명 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주보통학교 172건, 군산지음학교 164건의 명칭이 접수됐다.

이번 조사는 교명 제정 과정에도 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명제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선정된 각 학교별 후보군 5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는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으로 이뤄지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은 물론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향후 교명제정심의위원회 2차 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을 거쳐 최종 교명이 확정된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학교 이름은 학교의 비전과 학생의 성장을 담은 중요한 상징”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교명이 선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